

2019년 6월 22일,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.

김춘화(여, 1933년생, 서귀포시 정방동)

- 서귀포시 남원면 태흥리 출생, 22세에 결혼 후 서귀포시 송산동에서 살다가, 45세에 정방동에 와서 현재까지 40여 년째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남선비가 작은부인의 간계에 빠져 여섯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. 그런데 막내아들의 지혜로 다섯 형을 모두 살리고 계모를 죽여 복수하였다.

[제보자] 노일저대귀일이뜰이 아들 여수 성제 잇인디 이제 첨. 족은어멍으로 들어간다. 이제 그 아들 여수 성젤 몬 잡아 먹젠텐, 막 아프덴 수뭇 몬 죽어가는 체룩 허다네.

이제 우장 쓰구 막 가면 앗아네 점지례 이제 점쟁이로 간 앗이난 이제 그 귀 일제더 사위가 그 아덜 여수 성제 난 아방이 이제 그 점지엉 나 살려드렌 하도 헛난 글로 점을 지레 가난.

아들 여수 성젤 다 잡아 먹어야 벵이 좋으넨 헛난, 이제 그거 아덜 여수 성젤 그 아방이 이제 죽이젠텐 칼을 승당승당 골았이나네.

“아버지, 그 무시거 헛젠텐 칼 같았우과?”

“니네 어멍 아들 여수 성제 애 내 먹어사 좋덴 헛나네 칼 같았저.”

경 허나네.

“아이고, 허거들랑 아버님, 수고헐 거 엇이 그 칼을 날 주멘 나가 가그네 형들 다섯 성젤 몬 죽영 애 내영 왕, 어멍 맥여나그네, 헛나랑 아버지가 잡양 줍서.”

허난, 경허렌 헤니 칼을 주난, 이제 여수 성제가 이제 산드레 기가 맥히노난, 산드레 올라가 누려노나네, 이제 그 거시기 산돼지가 여섯 개가 잘잘잘잘 누려오 랗어.

게난 그 여수 성제가 헛나 삿건 심어 삿인디 허나네, 이젠텐 다섯, 산돼지 다섯 모릴 애 내단, 다슴어멍을 준 거라. 주난 족은아들이 그추룩 영리해전.

게난 이젠텐 영 문?망으로 먹엄냐 아이 먹엄냐 보멍, 벌겅허게 입으로 영영 허당, 초석 알르레 곱지고, 영영영 허당 초석 알르레 곱지곡 헨, 여섯 성젤 다 애

내 먹언 이젠 그땐 족은아들이 활딱 놀려들어네 이불 확 걷언 보난 아들 다섯.  
그 돼지 다섯 개 애 내어온 거 오고생이 시난, 그땐 이년 헨, 그 년도 죽여네.  
바당에 뿌리난 손톱은 대우살 웅고. 똥고망은 물문줄이 웅고. 이제 무시건 어떻  
뒈진 헌. 역산 막 할마니네 산 때 막 들어도, 그건 몬 잊어불지.

게난 각각이 칫어네 바닷물에 간 그 족은아들이 각각 칫엉 바닷물에 간 들이  
치나네. 똥?망은 물문줄이 영 허면 영 거치면 옴지락허는 거허고, 손은 손콥은  
그 대수알 그거 웅고 이제, 허여네 허엿젠헌 역사가 우리 할마니네 앗으면 막  
그런 남선비 말이영 하영 골아도 늙으난 몬딱 잊어비언게.

게난 그 아들 여숫 성제 난 아방은 남선빈 생이라. 게난 남선비 육은 깐에도  
경 당햇젠헌 아들 여숫 성제 난 아방은 남선비여. 그 말 못 골아.

- 핵심어: 칼, 산돼지, 족은아들(작은아들), 노일저대귀일이뜰(노일저대귀일이딸), 족은어멍(계모), 여숫 성제(여섯 형제), 남선비, 애(간), 물문줄(말미잘), 다슴어멍(의붓어머니), 아방(아버지)